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Pak Woo-hyeon's Exile in Wooi Island and Social Aspects in the Late 19th Century Seen from 『  
Jasanrok』

---

저자 (Authors)	최성환 Choi, Sung-Hwan
출처 (Source)	<a href="#">지방사와 지방문화 20(1)</a> , 2017.5, 87-131 (45 pages) <a href="#">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20(1)</a> , 2017.5, 87-131 (4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역사문화학회</a> Korean Society For Local History And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185438">http://www.dbpia.co.kr/Article/NODE07185438</a>
APA Style	최성환 (2017).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87-131.
이용정보 (Accessed)	목포대학교 121.149.7.*** 2017/06/30 09:2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최성환\*\*

## — 목 차 —

1. 머리말
2.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와 『茲山錄』
3. 우이도 유배 길과 압송과정
4.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 양상
5. 19세기 후반 우이도의 사회상
6. 맺음말

## — [초록] —

본 연구자는 섬 유배인의 기록을 분석하여 ‘섬주민과의 교류 관계’ 및 ‘섬의 사회상’을 조 명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 논문의 대상지는 조선후기에 ‘흑산도’로 통칭 된 ‘우이도’ 이고, 분석 자료는 朴遇賢(1829~1907)이 우이도 유배시절을 기록한 『茲山錄』이다. 연구 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조선시대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를 살피고, 박우현이 남긴 『자산록』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우이도 유배 길과 압송과정을 검토하였다. 셋 째,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 양상을 파악하였다. 넷째, 『자산록』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우이도의 사회상을 살폈다.

『자산록』에는 1874년부터 1884년까지 11년에 걸친 우이도 유배생활의 전말이 상세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본고는 신안문화원 향토사료지 『자산록』(김형만 역, 2016, 비매품)에 필자가 작성 한 해제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본고에 인용한 일기내용은 이 책의 번 역문을 활용한 것임을 밝힌다. 지면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신안문화원, 한학자 김형만, 그리고 처음 이 자료의 존재에 대해 제보해준 흑산도 향토문화연구원자 이영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게 담겨 있다. 일반적인 유배인 기록은 詩文으로 당시의 감회를 묘사한 것이 많은데, 이 자료는 일기형식의 備忘錄으로 당시 상황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섬 유배제도의 전통적 측면과 격동의 근대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섬 사회상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고의 성과는 섬 유배인에 대한 행정조치, 생활모습, 사회상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행정조치는 압송 절차, 유배 섬까지의 육로와 해로이동 과정, 安置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생활양상과 관련해서는 우이도 주민들의 유배인에 대한 대응과 교류, 유배인의 섬 문화 인식, 유배생활의 고충, 최익현과의 만남 등을 살폈으며, 사회상과 관련해서는 黑山鎭의 설치시기와 別將 역할, 섬과 淸州府 문제, 우이도 해역의 어업상황과 19세기 후반 기근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 등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자산록』, 박우현, 유배, 우이도, 흑산도, 흑산진, 교류

## 1. 머리말

‘섬과 유배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섬이 지닌 단절성과 고립이다. 그러나 반대로 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섬 특유의 독특한 인문환경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는 섬이 지닌 인문환경의 특수성 중 소통의 문화상을 살피는 차원에서 유배인의 기록을 활용한 섬 사회상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지는 조선후기에 들어 ‘흑산도’로 통칭 된 ‘우이도’이고, 주요 분석 자료는 朴遇賢(1829~1907)이 우이도 유배시절을 기록한 『茲山錄』이다. 흑산도는 조선시대 죄인의 유배지로 활용된 대표적인 섬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후기 ‘흑산도’라는 지명에는 오늘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가 포함되어 있다. 각종 사료에 우이도는 ‘소흑산도’ 혹은 ‘흑산도’로 기록되어 있다. 유배인 관련 기록에는 흑산도로 유배시킨다는 기록만 있기 때문에 실제 유배인이 어느 섬에서 거주 했는지는 세부 자료를 분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육지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우이도(소흑산도)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흑산도와 우이도 사이를 오가며 적거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했다.<sup>1)</sup>

흑산도에는 『茲山魚譜』로 유명한 정약전을 비롯하여 구한말 사상가 최익현 등 많은 역사 인물이 거쳐 갔고, 그에 따른 여러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茲山錄』처럼 유배 경위와 유배길, 섬에서 생활양상, 해배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기록은 매우 드물다. 흑산도 유배인과 관련 된 기록 가운데는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조선시대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와 박우현이 남긴 『자산록』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다. 『조선왕조실록』, 『各島配囚案』, 『島流配案』, 『流配案』, 개인 문집 등을 분석하여 흑산도에 유배 된 인물들의 현황을 살폈고, 『자산록』의 구성 내용과 사료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둘째, 섬 유배인에 대한 행정조치와 우이도 유배 길에 대한 분석이다. 박우현의 사례를 통해 19세기 후반 섬 유배인이 우이도까지 압송되는 상황, 압송관리의 역할, 위리안치의 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우이도 유배인의 생활양상 부분이다. 박우현의 사례를 통해 ‘保囚主人’, 글공부 제자들과의 관계, 섬 주민들이 유배인을 대하는 태도, 흑산진 별장과의 교류 등 섬에서의 주요 일상을 살폈다. 넷째, 조선후기 우이도의 사회상에 대한 분석이다. 일반적인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구체적인 섬 사회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조선후기 우이도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흑산진 설치시기와 별장 역할, 표류선 문제, 우이도 주민들의 생활상, 고적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자산록』에 담긴 내용을 일차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사시기 우이도와 관련된 기타 사료와 관련 유배인들이 남긴 기록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박우현이 살았던 우이도 진리마을에 대한 현장 답사를 병행하였다.

1) 우이도가 흑산도로 불리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통해 처음 밝힌 바 있다. 최성환, 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143~145쪽.

## 2.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와 『茲山錄』

### 1)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

먼저 흑산도에 유배인이 보내진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흑산도에 유배인이 보내졌다는 사실이 언급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1123년 서궁이 쓴 『高麗圖經』이다. 흑산을 소개하는 부분에 “나라 안의 대 죄인으로 죽음을 면한 자들이 흔히 이곳으로 유배 온다.”는 기록이 있다.<sup>2)</sup> 이미 고려시대에 흑산도가 중죄인의 유배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총 6건의 흑산도 유배인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1148년(의종 2)에 유배된 鄭壽開가 최초 사례이며,<sup>3)</sup> 朴暄, 崔晙, 閔稱, 柳璈이 고려시대에 흑산도로 유배된 사실이 확인된다. 대부분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흑산도는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소재지인 대흑산도이다.

이어서 조선시대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 가장 빠른 시기 확인되는 인물은 1689년 유배된 이침한이다. 그 이후 수많은 인물들이 흑산도로 보내졌다. 섬 유배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전 연구자들의 경우 장선영은 흑산도를 유배지로 이용한 통계를 68회로 파악하였고, 김경옥은 흑산도 유배인의 수를 55명으로 통계를 냈다.<sup>4)</sup> 본 연구자가 확인한 흑산도 유배 빈도는 총 130명(회)이다. 이 역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기록에는 구체적인 섬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채 섬으로 유배시킨다는 내용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자산록』에 언급된 우이도 유배 인물 중 洪觀錫, 李容鎬의 경우도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2)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2005, 『송나라 사신, 고려를그리다 고려도경』, 서해문집, 259쪽.

3) 『고려사』 열전 3, 宗室 2, 大寧侯暄傳.

4) 장선영, 2001, 『조선시기 流刑과 絶島定配의 推移』,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183쪽 ‘〈표 3〉 유배지별 빈도 순위표’; 김경옥, 2001,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153~154쪽 ‘〈표 2〉 조선시대 전남지역 유배인 배소의 군현별 추이’.

인물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130명 숫자는 실록과 유배안, 개인 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 한 숫자이다.<sup>5)</sup> 자료가 발굴되면 될수록 관련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조선시대 흑산도 유배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흑산도 유배인 목록

연번	이름	유배시기	사유
1	李瞻漢	1689년~1693년	기사환국 연류. 장류를 당하고 유배
2	金必鳴	1693년	미상, 유배 중 소장을 올림
3	李晩初	1690년 1월 25일	이상의 아들로 아버지와 같은 죄
4	內人 正淑	1693년 4월 3일	간사하고 아첨하며, 해괴한 짓
5	柳命賢	1694년 4월 2일~1699년	갑술옥사로 남인이 실각
6	李徵明	1694년	동언으로 인해 흑산도 유배경험 언급
7	鄭順億	1703년	과거시험 시험지 부정
8	죄인들	1703년 11월 15일	과옥 죄인들의 유배지 이배
9	林溥	1706년 8월 22일	윤순명의 국문에 참여했던 관리
10	洪啓迪	1721년 12월 7일	李正臣의 소를 소척
11	金俊材	1723년 1월 10일	金春澤의 아들로 역옥 연좌
12	李廷煥 처	1723년 12월 19일	강상죄
13	崔補	1724년 11월 12일	김일경에 대한 상소
14	睦時龍	1725년 4월 20일	역옥
15	沈益衍	1731년 1월 11일	국청 죄인
16	李台重	1735년 4월 25일	노론 4명의 신원 회복 주장
17	趙泰彦	1737년 8월 13일~1740년	민택수를 비호하는 장계
18	金致屋	1738년 5월 해배	당론으로 인함.
19	李聖海	1738년 5월 15일 ~1739년 2월 5일	이광좌를 비난 하는 상소
20	成震齡	1739년 10월 12일	국청죄인으로 흑산도로 유배됨.
21	金時粲	1740년 5월 23일~7월 1759년 6월 13일~1764년	당평책 반대 副提學을 계수를 사양하는 글의 불경죄
22	梁再九	1740년 8월 3일	梁繼揆의 삼촌 연좌율에 의거
23	李匡誼	1741년 5월 23일	국청죄인
24	尹光天	1744년 10월 17일	이언세를 언급했다는 이유
25	조징	1745년 2월 14일	망측 부도한 말을 함부로 함
26	이득중	1745년 2월 14일	조징의 말에 날조 부합

5) '누구 외'로 기록된 경우도 있어 실제 숫자는 130명보다 더 많다.

27	李萬江 (奇嚴宅周)	1745년 5월 26일	노비 신분을 위조하고 병과시험 합격
28	李亮天	1752년 10월 29일	당론으로 인함
29	심정연의 처	1755년 5월 4일	역옥 연좌, 노비가 됨
30	柳徹	1755년 5월 29일	유봉성의 아들 역옥 연좌
31	金延壽	1755년 7월 17일	역옥
32	徐迥修	1757년 3월 16일	당쟁을 일삼음
33	洪述人	1757년 11월 2일	거짓으로 상변을 고함.
34	柳仁植	1757년 11월13일~12월 7일	왕세자의 낙상
35	徐泰恒	1757년 11월13일~12월 7일	왕세자의 낙상
36	崔聖俞	1757년 11월13일~12월 7일	왕세자의 낙상
37	洪碩海	1757년 11월13일~12월 7일	왕세자의 낙상
38	內人 得惠	1757년 11월13일~12월 7일	왕세자의 낙상
39	英時	1758년	유배사유 미상
40	閔老味	1759년 12월 10일	국청죄인
41	高致龍	1760년 3월 21일	역옥
42	李亨模	1761년 9월 9일	불경죄인 송보명의 家狀을 지음.
43	朴文興	1761년 9월 22일	왕세자의 서행을 이유
44	宋錫殷	1762년 7월 19일	향전에 참여
45	沈鑰	1762년 7월 25일	甲山府의 노비였다가 이배됨
46	朴致隆	1762년 8월 10일	사도세자의 구명을 위하여 상소
47	李得龍	1762년 12월 19일	허위사실 유포
48	裴胤玄	1763년 1월 7일	백성들을 선동한 죄
49	趙德昌	1763년 1월	궁궐 담장을 넘어가는 짓
50	金重光	1763년 1월 21일	服飾과 器皿을 훔치고 팔
51	沈陽復	1763년 11월 20일	역옥
52	月中梅	1763년 11월 20일	역모에 연루
53	李洙麟	1764년 8월 19일	강상죄
54	尹光禮	1766년	영조의 官階 자급에 상소
55	李奎緯	1767년	간관을 사면해 줄 것을 청한 죄
56	金若行	1768년~1771년	朴世采를 두둔하는 상소
57	趙毅鎭	1768년	행문에 거짓이 많다는 이유
58	李鼎烈	1769년 1월 20일~2월 29일	『유곤록』을 거두어 훼손할 것을 상소
59	權極	1769년	간언, 유배길에서 사망
60	李逢源	1769년	朴世采의 從후을 黜放하기를 청함
61	南益祥	1769년 10월 4일	제주 목사시 남형불법
62	李東泰	1769년11월 13일	장흥 稅船 파손

63	韓鎔	1770년 3월 22일	洪鳳漢을 참하라는 상소
64	申光履	1770년 5월 23일	이원의 상소 내용 관련
65	五得	1770년 5월 27일	어의를 훔친 일
66	成郁	1771년 2월 1일	음험하여 관노가 됨
67	李義天	1771년 5월 26일	『明紀輯略』 유통 죄, 처자도 관노
68	裴景度	1771년 5월 26일	『明紀輯略』 유통 죄, 처자도 관노
69	책장수8인	1771년 5월 26일	『明紀輯略』 판매
70	高世讓의 두 아들	1771년 6월 11일	연좌
71	呂善亨	1771년 7월 11일~8월 19일	당론
72	이도찬	1771년 8월 3일	당론, 충군됨
73	鄭世柱	1772년 3월 17일	환곡 발매
74	俞恒柱	1772년 3월 21일	당론
75	俞彥鎬	1772년 3월 24일	淸名流 사건 연루
76	許溫의 처	1772년 5월 5일	지아비의 賤妾을 투기 함
77	李範濟	1772년 7월 3일	당론으로 인해 흑산도로 유배됨
78	여러 臺臣	1772년 8월 17일	흑산도로 유배되어 서민이 됨
79	韓必壽	1772년 8월 20일	대사헌으로서 업무 불이행
80	김식	1773년 1월 27일	패약, 방자한 대답, 종신 유배, 서민.
81	李英幹	1773년 2월 4일	稅米 미납
82	黃昇源	1773년 5월 20일	趙榮順 처벌을 주장하는 臺論에 반대
83	柳翼星	1773년 12월 26일	표류한 왜선의 물화를 몰래 취득
84	中官	1774년 5월 2일	공물을 情債
85	李迪輔	1775년 3월 15일 ~1776년 3월	이담을 비판하는 소
86	申正起	1775년 4월 11일	요행을 바라고 나이를 속임
87	金闡碩	1775년 4월 11일	요행을 바라고 나이를 속임
88	黃宅仁	1775년 6월 27일	이조판서 鄭尙淳을 탄핵한 죄
89	朴盛源	1775년 11월 17일	南絳老의 신원과 그 복작을 청한 죄
90	沈翔雲	1775년 12월 22일	세손을 해하려 했다는 탄핵
91	洪纘海	1776년 6월 23일~1777년	홍인한·정후겸 등의 모역사건 연루
92	金致顯	1776년 8월 28일	남을 포함하는 상소
93	金龜柱	1776년 9월 9일~1784년 8월	정조를 해치려 한 사실
94	洪述海	1777년 1월 16일~1778년	황해도관찰사로 제직 중 비리
95	鄭澤孚	1778년 6월 4일~1782년	역적 李禕의 중에게 호의를 베풀
96	李普溫	?~1778년 6월 18일	미상, 흑산도에 정배 후 이배기록
97	月惠	1782년 4월 9일	姜龍輝의 딸로 역육 연좌

98	崔光泰	1782년 6월 30일~1789년	李有白의 상소사건에 연루
99	任觀周	1782년 7월 10일~1784년	時弊상소로 金履素에게 탄핵 됨
100	宋煥九	1782년 10월 10일	金城 전 현령으로 불법한 짓
101	任伊	1784년 7월 29일	김인이의 부인으로 연좌
102	李魯春	1785년~1799년	김하재의 역옥
103	允藏	미상(1785년 실록에 언급)	『鄭鑑錄』을 숨겨둔 죄
104	金寧鎮	1786년 12월 30	미상
105	李益運	1794년 9월 5일	경연석상에서 방자한 습성
106	李顯道	1795년 3월 3일~1795년 6월	하찮은 일로 하리에게 곤장을 칩
107	柳河源	1796년 2월 12일	獻納으로 李周爽의 일을 논함
108	金履百	1797년 11월 12일	역옥으로 인함
109	度謙	?~1800년	미상, 흑산도에서 금감도로 이배
110	丁若銓	1801년~1816년	신유사옥 관련, 천주교 신앙
111	金日柱	1806년 5월 17일	역옥으로 인함
112	洪燦謨	1817년 1월 22일	흉서사건 관련
113	조경진	1827년 5월 5일	당론으로 인함
114	李肇源	1827년 8월 19일 ~1832년 3월	李海靑의 무고를 상소한 죄, 적소사망
115	洪若弼	1842년 7월 7일	색리에 너물 요구
116	徐永淳	1844년 9월 6일	국청 수인
117	李奎和	1853년 11월 27	李明燮을 추대하여 역모 모의 발각
118	朴慶善	1858년 8월 30일	투고로 사람 모함
119	白基虎	1865년 2월 15일	판관 부임 후 탐욕
120	朴遇賢	1873년 10월 19일~1885년	최익현 상소에 대한 논박 상소
121	崔益鉉	1876년 1월 27일 ~1879년	조약체결의 불가함 역설
122	李承弼	1883년 3월 28일 ~1884년 8월 1일	조세를 횡령한 혐의
123	李容鎬	1884년 4월 10일	미상
124	洪觀錫	1883년 8월	『자산록』 1883년 8월 28일 안치 기록.
125	李容元	1891년 2월 17일~1894년	민씨들의 고종 왕위선양 모의 항의
126	權鳳熙	1893년~1894년	상소로 조정 비난
127	尹震求	1895년 4월 19일	모살죄
128	全峻基	1896년 4월 18일	미상, 흑산도 10년 유형
129	金鴻陸	1898년 8월 25일	너물수수, 유배전 사형
130	李祖鉉	1900년 12월 31일~ 1906년 1월 18일	모반죄

〈표 1〉에서 확인 한 유배인 명단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흑산도에 유배인이 보내지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 빈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시대 시기별 흑산도 유배인 빈도

시기	1675 ~1720 (숙종)	1721 ~1724 (경종)	1725 ~1776 (영조)	1777 ~1800 (정조)	1801 ~1834 (순조)	1835 ~1849 (헌종)	1850 ~1863 (철종)	1864 ~1907 (고종)	1908 ~1910 (순종)	합계
빈도	9	4	80	16	5	2	3	11	0	130

조선 전기에는 죄인을 흑산도로 유배시키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다가 숙종대에 이르러 유배인이 보내지기 시작한다. 수군진 설치 등의 상황과 연계되어 흑산도에 유배인들이 보내지는 흐름이다. 이는 서남해 도서지역 유배인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sup>6)</sup>

이어서 유배지로서 흑산도에 대한 인식부분을 살펴보겠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흑산도에 대한 당대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영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상징적이다. 1725년 3월 26일 사화와 연루된 이들에 대하여 논하는 부분에 “옛날에 이르기를 이 길은 荊棘의 50년이다. 흑산도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어떻게 길을 열 수 있겠는가?”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이에 영조는 “특별한 전교 외에는 귀양 보내는 곳을 黑山島에다 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라.”고 하였다.<sup>7)</sup> 또한 1735년 4월 25일 기록에는 “흑산도는 험난한 바다와 악독한 瘴氣가 다른 정배지 보다 가장 심하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sup>8)</sup> 그만큼 흑산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絶島이며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유배인 스스로가 남긴 기록에도 흑산도는 섬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곳임을 표현하고 있다. 1827년 흑산도에 유배된 李肇源이 남긴 『黑海吟』 중 「諸島歎」에는 “錦州 十二島에 小黑山이 가장 險惡”하다는 표현이 담겨있다.<sup>9)</sup>

6)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장선영, 앞의 논문; 최성환, 2011, 『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7) 『영조실록』 권4, 1725년(영조 1) 3월 26일 갑자 2번째 기사.

8) 『영조실록』 권40, 1735년(영조 11) 4월 25일 을축 3번째 기사.

그럼에도 영조 대에 흑산도 유배인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다. 영조의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탕평책의 실시와酷刑의 폐지 등이 정치적 배경이 된다. 탕평책을 통한 군주권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의 강화가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쟁이 자주 발생했고, 정치집단이 교체되는 상황이 많았다. 더불어 흑형의 폐지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사항에 대해서도 유배형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늘었다.<sup>10)</sup> 그러한 흐름은 정조 대에도 유지되었다. 이후 근대의 소용돌이로 진입하는 고종 대에 이르러 다시 유배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박우현은 고종 시대의 흑산도 유배인이었다.

## 2) 박우현과 『茲山錄』

朴遇賢(1829~1907)은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이고, 아버지는 朴秀龍, 어머니는 眞城 李氏이다. 현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에서 출생했고, 영주에서 살았다. 자는 穉文, 호는 錦坡이다. 1869년(고종 6) 급제하여 이듬해 승정원 부정자가 되었고, 1873년 사헌부감찰, 사간원 좌정언 등을 지냈다.<sup>11)</sup>

『茲山錄』은 박우현이 남긴 우이도 유배생활과 관련 된 기록이다. 1869년 9월 13일부터 1884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는 박우현의 문집인 『錦坡遺集』이다. 이 책은 석판에 인쇄된 것으로 1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인 柄寅이 편집, 간행하였다. 발행일은 1957년(단기 4290년 정유 9월 일)이다. 발행소는 대구시 삼덕동, 인쇄소는 대구시 비산이동 32반 문성당인쇄소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 표제는 소장본에 따라 조금 다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錦坡遺集 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연구자가 소장한 책에는 『錦坡遺集 單』이라고 표기되어 있다.<sup>12)</sup> 내제는 모두 ‘錦

9) 李鑿源, 『黑海吟』, 『玉壺集』, 규장각 소장자료.

10) 장선영, 앞의 논문, 185~186쪽.

11) 『茲山錄』에 실린 『行狀』을 토대로 작성.

12) 본 연구자도 고서점을 통해 『茲山錄』원본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坡遺集 茲山錄序'라고 표기 되어 있다.

『茲山錄』은 『錦坡遺集』 1권에 실려 있다.<sup>13)</sup> 『茲山錄』 권두에 權相圭의 서문과 권말에 1891년 安鎬重, 1892년 金禹昌, 1893년 金輝轍, 1894년 朴奎陽, 1896년 金鎬相, 1928년 朴勝振, 1936년 李賢求가 작성한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맨 마지막에 雲阜 朴正言의 『茲山錄後』가 실려 있다.

책의 제목을 『茲山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문과 말미에 첨가된 발문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흑산도’는 임금이 죄를 물어 정배한 장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을 피했다. 그래서 검은 ‘黑’자를 같은 뜻의 ‘玄’으로 바꾸고, 같은 섬에 두 번 유배당하였으니 ‘玄’을 두 번 쓴 ‘玄玄’로 이름을 붙였다.<sup>14)</sup> 박우현은 1882년 7월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還配의 명을 받아 우이도로 돌아가 2년을 더 살았던 독특한 경험을 했다. 때문에 자신의 저술에 『茲山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sup>15)</sup>

『茲山錄』 명칭의 내력은 정약전이 『茲山魚譜』 서문에 “茲山은 黑山이다.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란 이름이 무서웠다.”<sup>16)</sup>고 서술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정약전 역시 ‘흑산’이라는 지명의 어감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흑산’은 곧 죄인의 유배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명에 담긴 뜻은 같으나 명칭은 다르게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자산록』의 분량은 총78쪽이다. 시기는 유배 전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날짜 수로는 총229일이다. 초반부는 박우현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는 과정, 1873년 최익현이 대원군을 탄핵하여 하야시킨 일을 논박한 상소,

13) 2권에는 부록으로 挽詞·제문·家狀·행장·묘지·묘갈명·立石告由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14) 『茲山錄』, 『茲山錄序』.

15) 『茲山魚寶』를 ‘현산어보’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언중은 「자산어보 명칭고」(『한문교육연구』 21, 2003)를 통해 ‘자’와 ‘현’으로 발음해야하는 각각의 주장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어보’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함을 학문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신동원은 「다산은 ‘현산어보’가 아니라 ‘자산어보’라 불렀다」(『역사비평』 81, 2007)는 글을 통해 당대 다산의 가문에서는 ‘자산어보’로 불렀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본 연구자 역시 ‘자산어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본 자료 역시 ‘자산록’으로 발음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다.

16) 정석조 역, 1998, 『상해 자산어보』, 신안군, 18쪽.

본인의 상소로 인해 鞫問을 당하고 섬에 유배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실제 우이도에 유배 된 시기와 관련 된 부분의 기록은 총171일이다. 1874년 1월 4일 우이도에 도착했고, 1884년 11월 28일에 떠났다. 그의 나이 46세~56세 시기를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보냈다. 햇수로 11년에 걸친 기록치고는 분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우이도에서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시기의 기록을 년도 별로 구분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자산록』 중 우이도 유배시절 기록 현황

년도	일기 수록 날짜	기록횟수
1874년(甲戌)	1월 4일, 1월 15일, 2월 17일, 2월 20일, 2월 22일, 2월 29일, 4월 24일, 5월 30일, 6월 20일, 7월13일, 7월 20일, 7월 30일, 9월 7일, 9월 20일,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28일,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30일	20일
1875년(乙亥)	1월 1일, 1월 14일, 2월 10일, 2월 28일, 3월 10일, 5월 1일, 6월 15일, 6월 21일, 7월 10일, 7월 14일, 7월 25일, 8월 1일, 9월 1일, 9월 17일, 10월 11일, 10월 29일, 11월 10일, 11월 20일, 12월 25일, 12월 29일	20일
1876년(丙子)	1월 20일, 1월 28일, 2월 10일, 2월 20일, 3월 12일, 4월 3일, 5월 22일, 6월 10일, 7월 5일, 7월 14일, 7월 17일, 8월 10일, 9월 10일, 9월 17일, 10월 16일, 11월 15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25일, 12월 30일	20일
1877년(丁丑)	1월 10일, 1월 29일, 2월 9일, 2월 18일, 2월 20일, 3월 15일, 3월 21일, 3월 28일, 5월 24일, 6월 6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29일, 7월 12일, 7월 22일, 8월 20일, 11월 3일, 12월 15일	18일
1878년(戊寅)	1월 18일, 5월 25일, 6월 27일, 7월 11일, 7월 18일, 7월 29일, 8월 15일, 11월 14일, 12월 4일, 12월 24일	10일
1879년(己卯)	1월 1일, 3월 2일, 3월 10일, 3월 12일, 3월 22일, 5월 24일, 7월 20일, 11월 1일, 11월 25일, 12월20일	10일
1880년(庚辰)	1월 13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22일, 8월 23일, 8월 27일, 9월 3일, 10월 30일, 12월 20일	9일
1881년(辛巳)	1월 1일, 5월 17일, 6월 17일, 7월 11일, 윤 7월 16일, 윤 7월 22일, 8월 2일, 9월 16일, 10월 19일, 12월 5일	10일
1882년(壬午)	3월 30일, 4월 19일, 4월 22일, 4월 25일, 6월 21일, 6월 25일, 7월 13일, 7월 23일, 8월 10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1월 5일, 12월 8일	45일 (우이도 13일)
1883년(癸未)	4월 29일, 5월 10일, 8월 28일	3일
1884년(甲午)	5월 15일, 6월 25일, 8월 1일, 11월 17일, 11월 27일, 11월 28일	6일

날짜별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형태는 일기에 가깝다. 그러나 1년에 평균 20회를 넘지 않았다. 그나마 유배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록의 빈도가 낮다. 1882년의 경우 빈도가 늘어난 것은 일시 해배된 상황으로 실제 우이도 체류 기간의 기록은 13회이다. 8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32일 기록은 섬을 벗어나 일시 해배되는 과정에서의 기록이다. 환배되어 다시 우이도로 들어온 이후에는 그 기록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산록』은 유배의 일상을 하루하루 기록한 日記로 보기는 어렵고, 유배 생활의 전말과 중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備忘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박우현 스스로 『茲山錄』을 남긴 이유를 책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에 그 顛末을 기록하여 자손에게 남겨서 너희 늙은이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내가 죄에 저촉되면서부터 용서를 받기까지, 그간에 귀양길 을 바빠 오가고, 또 귀양살이를 하면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입은 것 또한 잊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해둔다.<sup>17)</sup>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부분 위주로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 주로 유배와 해배 과정, 집안의 소식과 나라가 돌아가는 일, 외부에서 편지가 도착 했거나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낯선 섬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자신의 병세와 치료과정, 힘든 유배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들에 대한 내용, 섬사람들과 교류한 내용 등이 중심을 이룬다.

날짜별 기록 역시 그때그때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기록이 가능할 때 정리 차원에서 한꺼번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날짜 상 우이도에 도착한 지 하루 후에 해당하는 1874년 1월 5일 기록에 섬 주민들의 풍속을 평가하면서 “가 끄 흑 魚와 향기로운 푸성귀가 나거든 먹어보라고 가져오기도 한다.”는 표현이 담겨있어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 한다.<sup>18)</sup>

17) 『茲山錄』 1884년 12월 25일.

18) 『茲山錄』 1874년 1월 5일.

『자산록』이 비록 일기는 아니지만 매우 긴 시간적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정약전이나 최익현이 우이도와 대흑산도를 오가며 거주한 것에 비해 박우현은 우이도에만 머물렀다. 11년 동안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관련된 기록이므로 당시 사회상의 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박우현이라는 인물이 학계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물사 연구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자산록』에는 박우현과 교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자신을 도왔던 보수주인의 이름부터 글공부를 지도했던 제자들의 이름, 지원품을 보내준 사람들, 수군진 관련 관리들의 이름, 왕래한 사람들의 이름 등이 그대로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우이도’라는 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와 사회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 담겨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 3. 우이도 유배 길과 압송과정

『茲山錄』에는 조선후기 유배형이 실제 집행되는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 박우현이 우이도에 유배되는 배경, 유배 노정, 압송절차, 안치절차 등을 살펴보겠다.

먼저 유배형을 받게 된 배경이다. 박우현은 1869년 과거 급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으나, 관직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다. 그의 유배는 1873년 최익현이 올린 상소를 비판하는 상소가 원인이 되었다. 『고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소문을 보니 많은 어구들이 신하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며, 품은 의도가 구절구절 흉악(중략), 遠惡島에 죽을 때까지 充軍시키고 당일로 압송하게 하라.<sup>19)</sup>

이 기사에 이어 “薪智島에 자신에 한하여 充軍하기 위하여 당일로 압송”<sup>20)</sup>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후 대신들은 유배대신 사형시킬 것을 줄곧 요청하였다.<sup>21)</sup> 최종적으로 박우현은 흑산도에 위리안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22)</sup> 『고종실록』의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었던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茲山錄』의 내용과 후손 박후익(1888~1953)이 쓴 행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최익현이 10년간 지속된 대원군의 집정시대를 끝내야하고 성인이 된 고종이 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려 대원군이 정권의 전면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박우현은 1873년 12월 12일 최익현이 부자지간을 이간질했다는 비판과 함께 고종에게는 孝悌의 도리를 다할 것을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sup>23)</sup> 결국 박우현의 유배는 최익현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빌미가 된 것인데, 그 과정에는 고종과 대원군 지지세력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어서 박우현이 압송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유배인을 배소지에 압송하는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는 유배인이 관직자인지 여부와 관직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관직자의 경우 의금부에서 관할, 정2품 관서 이상의 대신들은 의금부 도사가 압송하고, 종2품 참판 이하에서 정3품 당상관까지 관직자는 의금부 서리, 정3품 당하관 이하 관직자는 의금부 나장이 압송했다. 그러나 ‘圍籬安置’ 죄인의 경우는 신분에 관계없이 의금부 도사가 압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4)</sup>

박우현의 경우 府郎 武都事 南宮泳, 押領拿將 劉禎植, 押吏 吳某 등이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다.<sup>25)</sup> 위리안치 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義禁府에 소속된 관직인 부랑 무도사의 책임 하에 압송되었음이 확인된다. 박우현에게는 보통사람이 사흘 걸리는 길을 하루에 가는 ‘三倍道’로 압송 명이 내려졌다.

19) 『고종실록』 권10, 1873년(고종 10) 12월 12일 병술 3번째 기사.

20) 『고종실록』 권10, 1873년(고종 10) 12월 12일 병술 4번째 기사.

21) 『고종실록』 권10, 1873년(고종 10) 12월 14일 무자 3번째 기사 외.

22) 『고종실록』 권10, 1873년(고종 10) 12월 19일 계사 3번째 기사.

23) 『茲山錄』 1873년 12월 9일 기록과 행장을 참조함.

24) 김경숙, 2004,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67호, 역사문제연구소, 266쪽.

25) 『茲山錄』 1873년 12월 21일.

이와 관련 된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다. 압송책임을 맡은 府郎은 박우현의 유배 길을 재촉하는 일을 맡았다.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려고 노력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사십 리 길을 가서 華城에 이르니 시각이 이미 初更이어서 留宿하는가 싶었는데, 府郎이 또 거듭 길을 재촉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처럼 三倍道로 귀양길에 오르라는 엄명이 있었거늘, 어찌 이미 命을 묵혀 실행치 아니하고, 이제 또 여기에서 유숙한다면 道理로 헤아려 보아도 지극히 미안하다. 또 京城과 멀지않은 곳에서 이처럼 더디고 느즈러진다면 府郎이 필시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는 일의 이치와 형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또한 府郎이 우리 때문에 連累될까 두렵다고 하여, 마침내 밤이 새도록 바삐 달려 칠십 리 길을 가서 振威邑에 이르니 밤이 새어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sup>26)</sup>

밤이 새도록 바삐 길을 갔다는 표현을 통해 ‘삼배도’ 압송 어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박우현은 날짜별 기록에 자신이 이동한 지역 이름과 거리를 빠짐없이 남겼다. 우이도까지 유배 길은 육로와 해로로 구분된다. 먼저 육로에 해당하는 경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박우현 유배길 육로 이동과정

날짜	이동지역	이동거리	비고
1873년 12월 21일	果川邑 - 華城 - 振威邑	110리	
1873년 12월 22일	天安邑	130리	
1873년 12월 23일	魯城邑	140리	
1873년 12월 24일	禮山邑	60리	비가 음. 부량은 30리를 먼저 감.
1873년 12월 25일	三禮驛 - 全州	30리	삼례와 전주사이 거리만 기록.
1873년 12월 26일	泰仁縣 - 井邑 月峰店	120리	
1873년 12월 27일	蘆嶺 - 長城縣	80리	
1873년 12월 28일	羅州邑	80리	부량은 먼지도착.

26) 앞주와 같음.

1873년 12월 29일	務安邑	50리	부랑과 함께 도착.
1873년 12월 30일	多慶津	60리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은 천안에서 노성까지 140리 거리였다. 유배 길을 떠난 후 하루에 100리 이상을 걸었다. 비가 와서 이동이 어려운 24일에는 60리를 걸었고, 육로 이동의 거의 끝 지역인 나주 인근에 와서는 이동거리가 줄어들었다. 『의금부노정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배인의 1일 평균 이동 거리는 86.1리였다.<sup>27)</sup> 때문에 박우현의 경우 숫자상으로는 평균 거리보다 더 많이 빠르게 이동하려고 노력했으나, 철저하게 3배 속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는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징적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우현은 유배되는 죄인이었지만 이동과정에서 가마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문맥의 흐름상 처음부터 가마꾼을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873년 12월 22일 기록에는 “다리가 부어올라 절뚝거리고 刺痛이 더욱 심해져서 실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틀 후인 24일 기록에 “가마꾼도 넘어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다음날인 25일 기록에는 “가마꾼과 아울러 낫밥을 먹었다. 나주 가마꾼 최문칠은 병이 나서 뒤 떨어지고, 세 사람의 가마꾼으로 어렵사리 삼십 리 길을 가 전주에 이르러서 서문 밖에 묵었다.(중략) 밤에 겨우 가마꾼 한 사람을 구해 채워 놓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즉 삼배도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걷는 것에 무리가 오자 가마꾼을 채용하여 유배지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던 상황으로 이해된다. 12월 30일 배를 타기 위해 다정진에 도착한 후 가마꾼과 헤어졌다.

이동과정에서 해당지역의 관리들로부터 음식과 노자를 지원받은 것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육로 이동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은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27) 김경숙, 앞의 논문, 268쪽 ‘<표 1> 『의금부노정기』의 각도별 유배행정’.

〈표 5〉 박우현의 유배길 육로이동과정 중 외부 지원 내용

날짜	체류장소	지원 내용
1873년 12월 25일	전주 서문밖	判官 元世澈이 저녁밥을 보내음.
1873년 12월 28일	나주읍	主牧 宋寅玉이 술과 저녁밥을 보내음.
1873년 12월 29일	무안읍	本倅 金復容이 內衙에서 저녁밥을 준비하여 보냄. 밤중에 또 책을 방으로 보내오고, 병 때문에 나가서 위로하지 못함을 사과하며, 전별금으로 銅 20緡을 보내음.

죄인으로 유배되는 몸이지만 지나가는 고을의 관리들이 위로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했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압송책임을 맡은 부랑이 반드시 유배죄인의 옆에서 동행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의 〈표 4〉 비고란에 정리한 것처럼 부랑이 죄인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가기도 했다. 1873년 12월 24일 예산읍에 도착한 후에 “府郎은 이미 삼십 리 길을 앞서 갔다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28일 나주에 부랑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무안읍으로 이동시 다시 함께 동행 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반드시 유배인 옆에 동행하기 보다는 유배 죄인의 노정을 재촉하고 도착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압송이 행해진 것이다.

또한 전체일정을 살펴 볼 때 처음 출발 시 압송관이 우이도 도착까지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에서 해당지역 관리에게 인계하는 형식이었음이 확인된다. 부랑은 앞서갔는데 나주읍에 와보니 “부랑은 도착해 있었다”는 기록<sup>28)</sup>과 다경진에서 이동할 때 “이에 本牧 府郎은 돌아가고, 이곳 府郎과 함께 배를 타고서, 비로소 인사말을 나누었다.”는 기록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sup>29)</sup> 의금부, 나주목, 다경진으로 압송관리가 인계되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뱃길로 이동하는 해로 부분이다. 우이도로 입도하기 위해서는 多慶津에서 배를 타야만 했다. 육로로 동행 온 인사들은 이곳에서 작별인사를 나눴다. 박우현은 다경진을 ‘갈림길’이라고 표현하고, “천리 길을 함께 온 사람들인데 떠나고 머무는 갈림길에 서니 또 저절로 슬프고 원망스럽다.”는 표현을 남겼다.<sup>30)</sup> 뱃길의 경우는 육로와는 달리 거리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28) 『茲山錄』 1873년 12월 28일.

29) 『茲山錄』 1873년 1월 1일.

거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날씨와 관련된 내용만 남아 있다. 바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다경진에 하루를 머물렀다가 다음날인 1874년 1월 1일 출항하였다. 우이도에 도착하기까지의 뱃길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박우현 유배길 해로 이동과정

날짜	이동경로	비고
1874년 1월 1일	多慶津 출항 - 巖泰島 南江津	
1874년 1월 2일	飛禽島 官廳口	
1874년 1월 3일	바람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함.	
1874년 1월 4일	牛耳島 도착	

박우현의 기록은 유배인이 우이도까지 가는 해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다. 남강진, 관청구 등 다른 자료에서는 보기 드문 조선시대 섬 고유지명이 나타난다는 점도 가치가 있다. 흑산도 유배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약전의 경우는 “동생 정약용과 羅州의 城北 栗亭店에 이르러 손을 잡고 서로 헤어져 각기 配所로 갔다”는 내용만 남아 있고,<sup>31)</sup> 입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우현이 우이도까지 이동한 해로를 지도 위에 표현하면 <그림 1><sup>32)</sup>과 같다.

30) 『茲山錄』 1873년 12월 30일.

31)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16권 墓誌銘 『先仲氏墓誌銘』.

32)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지도 위에서 표시함.

〈그림 1〉 유배인의 다경진에서 우이도까지 해로 이동 경로



우이도와 다경진 지역은 직선거리로는 55km 떨어져 있다. 박우현은 이곳을 4일 만에 도착했고, 중간에 비금도에서 바람 때문에 하루를 그냥 머물렀다. 날이 좋으면 3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다경진(A) → 암태도 남강진(B) → 비금도 관청구(C) → 우이도(D)’로 연결되는 뱃길은 현재 목포에서 우이도로 가는 여객선이 다니는 길과 동일하다. 뱃길은 143년 전과 지금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당시에도 목포에 木浦鎭이 있었는데, 목포진에서 배를 타지 않고 다경진을 이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경진은 현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에 해당하며, 조선후기에 수군만호진이 있던 곳이다. 다경진에서 배를 타는 것이 조선후기 유배인의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1876년 우이도로 유배 된 최익현의 경우도 다경포에서 배를 띄워 6일 만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33)</sup> 날씨에 따라 4일이 걸리기도 하고 6일이 걸리기도 했다.

33)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7, 『국역 면암집』 1, 술, 28~29쪽.

평소 배를 타볼 기회가 적었던 박우현에게 우이도로 향하는 뱃길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다. 스스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험한 물길에 올랐으니, 오장이 뒤집히고 구토가 나서 먹은 음식이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겨우 巖泰島 南江津에 이르렀는데 정신을 놓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였다.<sup>34)</sup>

실제 해로에서 암태도까지는 연안도서에 해당하여 파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박우현은 암태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정신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 했다. 다경진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고, 거기에 배까지 타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 더 심하였던 것이다. 암태도 남강진은 과거 암태도를 출입하는 중심 포구였던 곳으로 현 남강선착장(암태면 와촌리)에 해당된다. 지금은 팔금도와 연결되는 연도교가 설치되어 있다. 비금도 관청구는 관청도를 칭한다. 현재 흑산도행 쾌속선이 정박하는 비금면 수대리 일대에 해당한다. 비금도 본도와 연륙되기 전 공식 명칭은 ‘수도’였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관청도’라는 말이 전해오는 곳이다. 이곳에 대한 옛 지명이 박우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 길은 총16일이 소요되었다. 육로 이동 중에는 단 하루도 지체되는 일이 없었다. 배를 타기 위해 바람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에서만 다경진에서 하루, 비금도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이어서 우이도에 도착한 후 유배인을 안치하는 행정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다. 1874년 1월 4일 기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金吾郎이 관복을 갖추어 입고, 圍籬할 곳에 이르러, 이 몸을 安置하고, 封鎖한 후, 着啣을 마치고는 곧 바로 작별하고 떠나갔다.

34) 『茲山錄』 1874년 1월 1일.

박우현은 1월 4일 巳時(오전 9시~11시 사이)에 우이도에 도착했는데, 당일 오후에 곧장 행정조치가 진행되었다. 죄인을 압송해 온 관리가 관복을 갖추어 입고, 위리할 곳에 유배인을 안치한 후 해당지역의 관리에게 인수인계하는 着脚(문서에 직함과 성명을 적거나 수결)의 절차가 있었다. 박우현은 圍籬安置의 명을 받았는데, 위리안치는 죄인의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 가시덤불을 쌓아 그 안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기록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집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封鎖’라는 표현이 그러한 조치를 상징한다.

#### 4.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 양상

다음은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 양상에 대한 부분이다. 保囚主人, 섬 문화에 대한 인식, 주민과의 관계, 외부의 지원, 흑산진 관리 및 우이도 유배인과의 교류, 섬 생활의 고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유배지에서의 ‘保囚主人’과 관련된 부분이다. 섬에 유배인이 오게 되면 지역 관할청에서는 ‘보수주인’을 지정하여 유배인이 적거하는 장소를 정한다.<sup>35)</sup> 이에 따라 머물게 되는 집은 ‘謫所’가 되고 유배인을 감호하는 책임을 맡는 지역민은 ‘보수주인’이 된다. 위리안치 죄인에게도 ‘保囚主人’의 개념은 적용되었다는 것이 박우현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유배인 처소와 보수주인에 대한 적용 사례는 유배된 섬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더 후대이기는 하지만 지도에 유배된 김윤식은 스스로 처소를 구입하여 적거지를 몇 차례 옮기기도 했다.<sup>36)</sup> 그러나 우이도 사례처럼 멀고 생활환경이 더 척박한 경우에는 유배인 스스로 처소를 마련하거나

35) 김약행이 진도(금갑도) 유배시설 기록한 『적소일기』에는 섬으로 유배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인을 정하여 安接하고, 畜生하는 것이 예규”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약행, 2003, 『적소일기』, 『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목민, 213쪽.

36) 최성환, 2014, 『〈속음청사〉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지도유배생활과 도서지역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219쪽.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산록』에는 ‘보수주인’의 실명이 두 차례 거론되고 있다. 섬 주민의 실명이 언급된 자료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박우현의 우이도 적거지 보수주인 관련 기록

기록 날짜	관련 내용
1874년 1월 5일	保囚主人은 崔玉筍이라 하는 사람인데, 그 집안 형편이 몹시 가난하고 거처하는 집이 낮고 비좁아서 앉고 눕고 움직이고 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1875년 7월 10일	文光壽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甲壽의 막내작은아버지 집이다. 거처하는 곳이 모든 것이 전에 비하여 다행히 조금 편안하다.

맨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는 주민 최옥순의 집에 적거하였다. 집주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집이 비좁아서 생활하기 매우 힘들었음이 표현되어 있다.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거처를 문광수의 집으로 옮겼다. 문광수는 박우현에게 글공부를 하러 오는 ‘甲壽’라는 학동의 작은아버지였다.<sup>37)</sup> 이전 거처에 비해 조금 편안해 졌다고 표현하였다.

이어서 우이도와 섬사람들에 대한 박우현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다. 우이도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좋았다. 1874년 1월 5일 기록에 섬사람들의 풍속과 인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행히 섬이라고는 하나 ‘水土清美 人俗淳古’ 곧 물과 風土가 맑고 아름다우며, 민간의 風俗이 옛사람처럼 淳朴 敦厚하여, 가끔 魚와 향기로운 푸성귀가 나거든 먹어보라고 가져오기도 한다. 토지는 또 南으로 향하여 철따라 產物이 줄지 않고 나와서 고사리로 국을 끓이고 생강[藁荷]으로 나물을 무쳐 놓으면 風味가 빼어나서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다.<sup>38)</sup>

날짜 상 이 기록은 우이도에 도착한 지 하루 후에 해당한다. 때문에 앞에

37) 『茲山錄』 1874년 1월 5일.

38) 『茲山錄』 1874년 1월 5일.

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록』이 당일에 기록한 내용을 모은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훗날에 한꺼번에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하게 대목이다. 그렇지만 섬 주민들에 대한 인상과 유배인 박우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고, 박우현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육지에서 온 유배인이었지만 섬 주민의 생활상을 천하게 여기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 『자산록』의 특징이다.<sup>39)</sup> 그만큼 섬 주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과의 관계 부분을 살펴보겠다. 박우현이 우이도에 안치된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교류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섬 주민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글공부를 지도해 줄 것을 청하였다. 우이도에 도착한 지 하루 뒤인 1874년 1월 5일 기록부터 관련 내용이 나온다.

1874년 정월 초5일, 이웃에 사는 金世權이 그 아들 千斗를 데리고 와 공부를 가르쳐 주길 청하였다. 主人의 아들 永根도 천자문을 수업하고, 文甲壽, 金龍根 또한 와서, 마침내 서 너 명의 마을 아이들과 더불어 요리조리 글자를 짚어가며 천천히 읽혀갔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보수주인의 아들 영근, 이웃집 아들 천주, 문갑구, 김용근과 마을 아이들 서너명 총 7~8명이 박우현에게 글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이도 주민뿐만 아니라 대흑산도에서도 학문을 배우기를 청해왔다. “黑山 曳尾에 사는 鄭彭甲이 와서 學問 배우기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40)</sup> 섬에 유배 온 모든 선비들이 서당 훈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섬 주민 입장에서는 유배 온 사람들이 많아 매우 부담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외면하는 경우도 많았다.<sup>41)</sup> 섬 주민들은 상소로 인해 유배 온 박우현을 학식이 높은

39) 추자도 유배가사인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에는 섬 주민의 외모를 魚頭龜面으로 묘사하고 들사슴과 오랑캐에 비유하는 등 첫 대면의 어색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담겨있으며, 안조원의 「만언사」에는 추자도가 ‘지옥’으로 묘사되어 있다.

40) 『茲山錄』 1876년 9월 17일.

41) 추자도 안조원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섬 주민의 풍토를 알 수 있다. 그가 지은 가사 「만언사」에는 섬 주민들이 유배인의 보수주인을 맡는 것을 서로 거절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선비로 예우했던 것 같다.

글공부에 대한 댓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 옷에 아홉 살 난 文正吉이란 아이가 와서 공부하는데, 그 부모가 지성스럽게 두터이 보살피며, 물고기 채소는 말할 것도 없이 때때로 음식을 가져 오는데 그 성의가 가상하다.”는 표현이 남아 있다.<sup>42)</sup> 이외에도 “天斗와 正吉이 각각 새로 지은 솜버선 한 켤레씩을 바치었다.”<sup>43)</sup>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글을 배우는 아이들과 섬 주민들은 유배지에서 힘들어 하는 박우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유배생활이 길어지면서, 특히 유배지에서 해[年]를 넘겨야 하는 시기에는 박우현의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는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과 주민들이 박우현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 1874년 12월 30일 기록에 그 위로 받는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글 배우는 아이들이 각각 술과 고기를 받들어 올리며 위로하였다. 섬사람들 또한 여러 사람이 찾아 와 위로하였으나, 외로운 심정이 형클어진 실 같아, 스스로 물리 치기 어려워 홀로 한 자루 꺼져가는 촛불과 더불어 설달그믐 밤을 지새웠다.<sup>44)</sup>

유배지에서 해배될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잘 들어나 있다. 상소로 인해 유배와 있는 선비에 대한 지역민들의 예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체로 의복의 세탁과 재봉은 제자들이 번갈아 수고해 주었으며, 주로 제자였던 문갑구 집에서 도와주었다.<sup>45)</sup> 유배생활이 길어지자 제자가 죽는 경험도 하였다. 1881년 문정길이 요절하자, “칠팔 년 동안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데 비참함을 어찌 말하리오.”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남겼다.<sup>46)</sup>

또한 유배인과 섬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현지에서

42) 『茲山錄』 1874년 7월 20일.

43) 『茲山錄』 1876년 12월 30일.

44) 『茲山錄』 1874년 12월 30일.

45) 『茲山錄』 1876년 12월 30일.

46) 『茲山錄』 1881년 윤 7월 22일.

침을 얻는 것이다. 박우현의 경우 1873년 11월 “섬사람을 침으로 들여 몸을 의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47)</sup> 『자산록』에는 여인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고 ‘側人’이라 표현되어 있다. 우이도 유배시절 이 측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생겼다. 1879년 11월 25일에 여아를 출산 했다.<sup>48)</sup> 딸아이의 이름은 ‘珠嬌’였다.<sup>49)</sup> 1882년 4월 22일에는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박우현은 “이 또한 외롭게 사는 가운데 하나의 기쁨이 되기에 족하다.”고 표현하였다.<sup>50)</sup> 1884년 12월 해배되어 섬을 떠났을 때 珠嬌의 이숙인 崔金玉은 오로지 박우현을 배웅하기 위해 육지까지 동행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sup>51)</sup> 섬 주민과 유배인이 혈연관계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박우현은 우이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교류를 바탕으로 힘든 유배생활을 버텨갔다. 우이도 뿐만 아니라 주변 섬에서도 후원이 이어졌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섬 유배문화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다. 우이도 외 지역 섬사람들의 지원 내역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우이도 외 섬 주민들의 박우현 지원 내역

날짜	관련 내용
1877년 2월 9일	荷衣島 金成圭가 방문하여 두 緇의 銅을 도와줌.
1877년 3월 15일	大黑山 崔默山이 준치 오십 마리를 보내음.
1879년 5월 24일	大黑山島 사람들이 또 오십 金을 모아서 보내줌. 그들이 돈과 물품 보내 주기를 거둬 힘써하며 그치지 않음.
1877년 3월 21일	上峯 朴靖基, 玉島 經生 宋麟鎬가 찾아 와 가는 듯자리 하나를 주고 감.

섬사람들은 인근 섬에 유명한 선비가 유배와 있으면 그를 찾아가 교류하기도 하고, 본인 섬 지역의 스승으로 모셔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정약전, 최익현 등이 우이도에 머물다 대흑산도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 것도 그

47) 『茲山錄』 1877년 11월 3일.

48) 『茲山錄』 1879년 11월 25일.

49) 『茲山錄』 1882년 10월 2일.

50) 『茲山錄』 1882년 4월 22일.

51) 『茲山錄』 1884년 12월 11일.

렇고, 지도에 김평묵이 유배와 있을 때 인근 섬의 여러 제자들이 지도에 모여든 것도 그러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우현이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도 여러 인근 섬 지역의 식자층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류를 청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우현은 우이도의 수군진 관리들과도 비교적 허물없이 지냈다. “別將 趙完希가 옛날이야기를 잘하여, 매일 저녁 와서 말을 나누는 것 또한 심심치 않게 날을 보내며 지낼 만 하였다.”,<sup>52)</sup> “宋別將은 지체와 문벌이 있는데다가 또 예모에 익숙하고, 나에게 심히 권권하여, 매일 서로 방문하였다.”,<sup>53)</sup> “별장 全命仁이 새로 왔는데 성품이 또한 인후하여 처음 보는데도 오래 사귀 친구 같아서 마치 宋君을 보는 것 같다.”<sup>54)</sup>는 기록 등이 남아있다. 宋在洙 별장이 교체되어 가는 날에는 “서로 함께 눈물을 뿌리며 작별”하였다고 기록을 남길 정도로 흑산진의 별장과 각별하게 지냈다.<sup>55)</sup>

또한 우이도 인근 관청의 관리들도 틈틈이 지원품을 보내왔다. 대표적으로 <표 9>와 같은 내용들이 남아 있다.

<표 9> 외부 관리들의 유배인 박우현 지원 현황

날짜	관련 내용
1874년 4월 24일	나주목사가 將校 김두일 편에 안부, 약간의 돈을 보냄.
1874년 7월 13일	무안군수 김복용이 銅 20緡과 종이와 편지지를 보냄. 전라도 관찰사 조성교가 銅 100緡을 보냄.
1874년 10월11일	나주목사가 소주와 민어를 보냄 본군의 書寫吏 安箕燮 약간의 물품을 가지고 옴.
1875년 1월 14일	나주목사가 100緡의 동과 글을 보냄.
1875년 5월 01일	전주감영 관찰사가 節扇 여덟 자루 전해움.
1878년 6월 27일	楊別將이 錢 50緡과 전복 한 첩, 미역 한 단을 보내움.
1879년 3월 22일	別將이 나와서 오십 金을 베풀어 줌.
1880년 6월 17일	鐵將이 또 칠십 金을 도와줌.

52) 『茲山錄』 1874년 1월 15일.

53) 『茲山錄』 1878년 12월 24일.

54) 『茲山錄』 1880년 9월 13일.

55) 『茲山錄』 1880년 8월 27일.

실제 지원품을 보내온 내용에 대한 기록은 이보다 더 많은데, <표 9>는 관직명이 기록된 사례만 제시한 것이다. 나주목사, 무안군수, 전주감영 관찰사 등이 지원품을 보냈고, 유배지인 흑산진의 별장이 주로 지원품을 보내주었다. 박우현이 절도에 위리안치 된 중죄인이었지만 인정상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제한받지 않았으며, 주변 관리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우현은 우이도에 유배 온 다른 인사들과 교류하며 고된 유배지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이는 ‘섬’이 지닌 공간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최익현과의 만남은 우이도 유배생활 중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자신이 상소를 올려 비판한 대상자인 최익현과 같은 섬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자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최익현이다. 박우현은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최익현의 소식을 종종 들었고, 그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에 남겼다. 그러다가 1876년 2월 10일 그가 우이도로 유배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최익현이 이 섬에 안치되어 온다고 하니 괴이하다. 우리 두 사람을 어찌 한 곳에 모아 놓는단 말인가.<sup>56)</sup>

정적이거나 다름없는 곁끄러운 상대를 같은 유배인 신분으로 작은 섬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라 박우현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익현이 먼저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1876년 7월 14일 기록에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겨있다.

崔台 益鉉이 찾아왔다. 애초에 崔台가 섬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나의 병세를 물은 일이 자주 있었고, 또 그의 僮人 金允環 편에 傳喝을 보내고 문병하면

56) 『茲山錄』 1876년 2월 10일.

서, 곁하여 고기도 몇 근 보내온 일이 있었다. 嫌疑가 있는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먼저 것처럼 포용하는 마음을 베푸는 데에 느낀 바가 있었지만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常例에 따라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만나보러 찾아왔기에, 내가 말하기를,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을 한 섬에 내던져 놓게 한 것을 보면 세상 인연이란 것이 좋아하고 싫어함이 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어찌 알았겠소.(중략) 서로 웃으며 자리를 꺾하였다.

우이도에 들어온 후 사람들에게 박우현의 병세를 묻고 안부를 전해왔다. 최익현이 먼저 박우현을 찾아와 두 사람의 악연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다. 밖에서는 정치적 소견이 달라 정적이 될지언정 유배지 섬에서는 속세의 악연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후 두 사람은 간간이 서로 만나 적적함을 면하는 사이로 발전했다.<sup>57)</sup>

최익현은 박우현에게 글을 보내 자신이 대흑산도에 淺村 壁門 입구에 ‘指掌巖’이라고 이름 붙이고, ‘箕封江山 洪武日月’ 8글자를 새긴 것을 설명한 후 그에 대한 화답을 원하였다.<sup>58)</sup>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崔台가 글을 보내서, 늦봄 삼월에 仙遊峯에서 壁門에 이르러 보니, 큰 돌이 儼然히 깎아지른 듯이 서있는데 아래로는 바람과 비를 가릴 수 있어서, 손으로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다가 차마 떠나가지 못하고, 큰 글씨로 ‘箕封江山 洪武日月’ 여덟 글자를 새겨 놓고, ‘指掌巖’이라고 이름 붙여 놓았소. 韻을 불러 詩를 지어 읊조리는 것은 海上의 故事라 할 수 있지요, 가만히 보아하니, 우리 문은 謙謙君子로 자신을 낮추어 德을 기르면서 述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처하는데, 다만 또한 성대한 도량으로 만에 하나를 헤아려 달라고 하였다.

이 유적은 지금도 대흑산도 천촌마을 초입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자산록』의 기록은 이 유적 구성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57) 『茲山錄』 1877년 3월 21일.

58) 『茲山錄』 1878년 6월 27일.

최익현이 언급했듯이 박우현은 글 짓는 것을 즐겨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익현의 요구에 “굳이 사양하는 것도 함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지장암 암자에 대한 화답을 보냈다.<sup>59)</sup> 최익현이 바위에 새긴 글귀는 조선의 小中華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華西學派의 정신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비록 최익현의 상소를 비판했던 박우현이지만 유배지에서 만난 후로는 그를 존중하여 속세의 악연을 모두 떨쳐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외딴 섬에서 유배생활은 밖에서 겪었던 사상적 갈등을 상쇄하고 소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1879년 3월 10일 최익현이 먼저 해배되어 인사를 나눈 후 우이도를 떠났다.<sup>60)</sup>

최익현 외에도 우이도에 안치된 유배인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유배되었는지는 별 의미가 없었다. 과거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죄로 유배된 安豐鎬하고도 사이 좋게 지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sup>61)</sup> 이의 『자산록』에는 전 安峽 현감 李承弼,<sup>62)</sup> 전 眞寶 현감 洪觀錫<sup>63)</sup>이 안치되었고, 槐山 學士 李容鎬,<sup>64)</sup> 魯城 五衛將 尹相和가 제주에서 우이도로 이배<sup>65)</sup>된 기록이 남아 있다.

끝으로 섬 생활의 고충과 관련된 부분이다. 육지에서 온 양반에게 섬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섬의 환경에 적응 못하고 병세가 심해졌다. 섬의 자연환경과 음식이 큰 원인이었다. 1874년 6월 20일 기록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곳 섬은 3,4월부터 5,6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뭉게구름이 일고 습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풍토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먹는 것이 내려가지 않고 심기가 불편하여 두통이 간간이 일어서, 이런 저런 약을 복용해 보아도 효험이 없었다. 또 섬 안에 생선이 비록 귀하지만, 우리 고향에 비하면 자못 많아서, 이를 가지고

59) 『茲山錄』 1878년 6월 27일.

60) 『茲山錄』 1879년 3월 10일

61) 『茲山錄』 1874년 5월 30일.

62) 『茲山錄』 1883년 4월 29일.

63) 『茲山錄』 1883년 8월 28일.

64) 『茲山錄』 1884년 5월 15일.

65) 『茲山錄』 1884년 6월 25일.

몸을 補할 수 있으나 내 몸과 기력으로는 도리어 채소를 씹을 때만 못하니 정말 탄식할 노릇이다.

우이도에 온지 6개월 만에 음식을 먹을 힘도 없는 지경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박우현의 병간호에도 섬 주민들은 최선을 다했다. 박우현은 자신을 돌봐주는 섬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세가 낮지 않고 오래 끌어 스스로 헤아려보아도 꼭 죽을 것만 같다. 오직 다행스러운 것은 주인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미음을 쑤어주고, 배우는 아이들은 좌우에서 부축하여 돕고, 또 安仲明이 친히 진찰해서 지어주는 약, 文道敏, 文光肇가 치료에 힘을 다하는 것이 집안사람과 다름이 없다.<sup>66)</sup>

보수주인과 제자들, 섬 주민들의 도움이 마치 집안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섬 주민들은 유배죄인인 박우현을 극진하게 대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걸린 병은 쉽사리 치료되지 않았다. “설사병을 얻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이질이 되어, 변을 누는 횟수가 너무 잦아지더니 원기가 다 빠져나가서 자잘한 약과 의원이 처방한 약을 많게는 30여 종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심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7)</sup> 그만큼 육지 양반에게 섬 생활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섬 생활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외부의 소식을 제때에 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외딴 섬에 유배된 박우현에게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었다. 『자산록』에는 편지 왕래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섬사람들이 편지 전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섬사람 文石祿이 서울에서 가져온 家書를 전해주었다” 등의 내용이 남아 있다.<sup>68)</sup> 편지는 주로 稅船과 專船을 통해 전달되었다. 섬을 공무상 오가는 수군진 관

66) 『茲山錄』 1875년 9월 1일.

67) 『茲山錄』 1875년 7월 25일.

68) 『茲山錄』 1880년 6월 16일.

리들이나 상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孫喜宗’이라는 인물을 통해 집안 편지를 전달했다는 기록이 수차례 나온다.<sup>69)</sup> 그러나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안의 소식이 곧바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1880년 6월 16일 받아 온 집안 편지에는 “작년 동짓달 仲兄嫂 喪을 당하고, 금년 정월에는 仲母의 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해 12월에 상을 당했는데, 그 소식이 유배인 박우현에게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해진 것이다.

박우현은 1882년 7월 13일 해배 공문을 받고,<sup>70)</sup> 8월 10일에 우이도를 떠났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인 9월 11일에 유배지로 다시 돌아가려는 환배관문을 받았다.<sup>71)</sup> 해배조치가 내려진 것은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한 영향이었다. 그러나 청에 대원군이 납치되고 임오군란이 일단락되면서 또다시 박우현을 비롯하여 대원군을 지지했던 유학자들은 환배의 명을 받게 된 것이다. 한 개인의 유배와 환배 해프닝에도 한국근대사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우현은 우이도에 2년을 더 머물다 1884년 11월 해배되었다.

## 5. 19세기 후반 우이도의 사회상

『자산록』에는 조선후기 우이도의 풍토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산록』과 기타자료를 비교하여 우이도에 설치된 흑산진, 흑산별장의 역할, 표류선 문제, 우이도 해역의 어업상황, 古蹟, 섬 주민들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흑산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이도에 흑산진이 있었다는 기록은 여러 사료에 남아 있다. 대표 자료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69) 『茲山錄』 1874년 10월 28일, 1875년 9월 17일.

70) 『茲山錄』 1882년 7월 13일.

71) 『茲山錄』 1882년 9월 11일.

〈표 10〉 조선후기 사료 중 ‘흑산진’ 기록

사료명	구분	주요내용
輿地圖書(1758~1765)	黑山鎮	주 남쪽 바다 건너서 있다. 별장 무관 종5품, 군관 2, 진리1, 지인2, 사령2, 우수영에 속한다.
增補文獻備考(1770)	黑山島	일명 우이도라고 한다. 수레로 3백여리 지점에 있으며, 돌레가 35이고, 별장진이 있다.
大東地志(1861~1866)	黑山島鎮	우이도에 있다. 처음에 별장을 두었다. 수군만호 1명을 두었다.

흑산진을 설치한 것은 關防이 주목적이었다. 설치 논의가 언급된 1665년 閔蕃重의 상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右水營 앞바다는 진도에서 영광까지 수 백리 사이에 많은 섬들이 연결해 있어 멀리 외해는 보이질 않았습니니다. 왜적이 만약 외해를 따라 잠행한다면 돛을 펴고 한달음에 충청도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도, 전라도 각 진에서는 탐지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 매우 두렵습니다. 흑산도는 외양에 있어 나주와의 거리는 900여 리나 됩니다. 臨淄 慈恩 飛禽 세 섬은 모두 수영과 흑산도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이 네 곳에 鎮을 설치하고 鎮將을 둔다면 적들이 어찌 감히 멋대로 진보가 수망하고 있는 사이를 돌입하겠습니까.<sup>72)</sup>

해로를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수군진이 설치 된 이후 유배인이 보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배인 관리도 흑산진의 업무가 되었다. 죄인을 섬에 정배 시킬 때는 해당 지역에 유배인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청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지역 관청의 婢로 삼거나 充軍시킨다는 명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죄인을 소속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관청이 필수조건이었다. 우이도는 흑산진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 했다. 명칭은 흑산진인데 우이도에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유배인 김약행 기록에 “지금 우이도에 別將이 거주하는 鎮을 설치하여 또한 小黑山이라 칭하니, 朝士로 귀양살이 온 자들은 모두 牛耳鎮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sup>73)</sup>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흑산

72) 『현종개수실록』 권12, 1665년(현종 6) 1월 28일 을묘 9번째 기사.

73) 金若行, 2005, 『仙華遺稿』, 목민. 273쪽, 『遊黑山記』, “今設別將所居鎮於牛耳島亦稱曰小黑山朝士遷

진이 설치되면서 우이도가 ‘소흑산’이라 불리게 되었고, 유배인이 보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sup>74)</sup>

『자산록』에는 흑산진이 설치 된 정확한 시기가 언급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牛耳島는 곧 大黑山에 속하는 섬의 이름으로, 肅宗 丙辰년에 처음 鎭을 설치하고 別將을 두었으니, 이른바 小黒山이라 불리는 곳이다.

숙종 병진년은 1676년에 해당한다. 흑산진의 설치시기는 앞의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숙종 대에 이르러 우이도에 유배인이 보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흑산진의 기능은 관방과 유배인 관리가 주요 업무였는데, 『자산록』을 통해 흑산진 별장의 주요 임무와 관련 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자산록』중 흑산진 별장 관련 기록

날짜	이름	관련 내용
1874년 01월 05일	趙完希	조완희 별장이 옛날이야기를 잘하여, 매일 저녁 와서 말을 나눔.
1874년 07월 20일		趙別將이 교체되어 가는 편에 집에 편지를 부침.
1874년 10월 11일	楊文煥	표류선이 와서 兵吏와 頭民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문정
1876년 09월 10일		楊別將이 교체되어 돌아가는 편에 家書를 부침.
1878년 06월 27일		楊別將이 稅船을 띄워 보내려고 大黑山에서 돌아옴. 그 섬에서 모은 錢 50緡과 전복 한 帖, 미역 한 丹을 보내옴.
1878년 07월 18일	金商容 <sup>75)</sup>	禁府에서 別將 金商容을 잡아 오리는 공문이 도착함.
1878년 07월 29일	宋在洙	本鎭에 부임. 구 별장이 8월 초5일 대흑산도에서 돌아온 후에 교대.
1878년 12월 24일		지체와 문벌이 있고, 禮貌에 익숙하고, 나에게 심히 繼繼하여, 매일 서로 방문.
1879년 03월 22일		50金を 베풀어 줌.
1880년 08월 27일		교체되어 감에 서로 함께 눈물을 뿌리며 작별.
1880년 09월 03일	全命仁	새로 옴. 성품이 인후하여 처음 보는데도 오래 사귄 친구 같아서 마치 송군을 보는 것 같음.

謫者皆處牛耳鎭”. 이하 각주는 『遊黑山記』로 약칭함. 김약행은 1768년부터 1771년 까지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함.

74) 최성환, 2010, 앞의 논문, 143~144쪽.

75) 실록에는 ‘金尙龍’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종실록』 권1 1878(고종 15) 6월 16일 갑오 1번째 기사.

박우현이 우이도에 약 11년간 적거하는 동안 조완희, 양문환, 김상용, 송재수, 전명인이 총 5인이 흑산진의 별장을 맡았다. 박우현이 이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별장은 우이도에 머물면서 대흑산도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했다. 대흑산도에 가는 주목적에 대해서는 김약행의 기록에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別將은 해마다 여름·가을이면 바다를 건너, 토지를 조사하며 세금을 바치도록 독촉하러 들어간다.<sup>76)</sup>

별장이 우이도에 거주하였고, 여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흑산도권 섬지역의 토지를 조사하여 세금을 바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關防 외에도 섬에서 걷어 들이는 稅收 관리가 별장의 중요한 업무였다. <표 11> 1878년 6월 27일 기록에 제시된 것처럼 흑산진 별장은 “稅船을 띄워보내는 일”을 하였으며, 대흑산도에서 걷어 들인 돈과 특산품을 유배인인 박우현에게 일부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표 11>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표류선과 관련된 것이다. 1874년 10월 11일 우이도 현 성촌마을 쪽에 중국 상선이 표착해왔다. 鄧州府 鳳凰城에 사는 覃西淸 등 5인이 장삿길에 나섰다가 표류되어 우이도로 흘러들어 온 것이었다. 표류선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부분도 해당 지역 별장의 업무였다. 박우현의 기록을 통해 표류선이 오면 조선에서 어떤 절차로 문정을 하는지에 대한 실제 상황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밤에 別將 楊文煥이 兵吏와 頭民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問情해 보니 곧 鄧州府 鳳凰城에 사는 覃西淸 등 다섯 사람이 장삿길에 나섰다가 표류되어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이날 問情官 虞侯 看護 領護官 및 羅州牧에서 차례로 사람들이 들

76) 『遊大黑記』, “別將每歲夏秋涉洋而入檢田督稅以爲行鎮”.

어왔다.<sup>77)</sup>

1차적으로 수군진의 별장이 수군진 병졸과 마을 주민 대표를 데리고 조사를 나갔으며, 내륙의 수영에서 문정관으로 우후가 파견 나오는 상황이었다. 나주목에서도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 흑산도가 나주목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1877년 5월 24일 기록에는 “洋船이 또 大黑山에 정박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때 별장은 김상용이었다. 관련 내용이 『고종실록』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金基赫이, ‘黑山 別將 金尙龍의 치보에 이르기를, 『이달 9일 酉時 쯤에 세 개의 돛을 단 배 한 척이 남해로부터 올라와 黑山島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장이 황급히 가보았더니 선체의 윗부분은 검고 아랫부분은 누런색이었으며 깃발은 흰 바탕에 가운데가 붉은 것이거나 검은 바탕에 가운데가 흰 것들이었습니다. 글을 써서 물었더니 그자들도 글을 써서 보여준 내용에, 작년 7월 중 이곳에 와서 정박한 영국 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는 붉은 머리칼에 푸른 눈이었으며 의복은 흰색이거나 검은 색이었습니다. 잡인들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일을 명심하고 거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황을 물어보기 위하여 신의 軍營의 虞候 池禹洪과 漢學 鄭德潤을 즉시 보냈고 지방관인 羅州牧使 金善根과 主鎮將인 黑山別將 金尙龍도 또한 회동하여 자세히 정황을 물어서 치보 하라는 내용으로 관문을 보내 엄격히 신척하였습니다.<sup>78)</sup>

흑산 별장인 김상용이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전라우수영의 수군절도사에게 보고하였다. 표류인 처리 업무를 주무부서는 관할지의 수영이었는데, 우수영에 속한 우후와 한학을 즉시 파견하고, 지방관인 나주목사와 해당 수군진의 별장도 회동하여 정황을 보고하라고 조치하고 있다. “잡인들의 접촉

77) 『茲山錄』, 1874년 10월 11일.

78) 『고종실록』 권14, 1877년(고종 14) 6월 11일 을미 2번째 기사.

을 금지”했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격리를 통해 표류인 보호와 내국인과의 마찰 등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이다. 또한 표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별장의 임무였다. 1742년 9월 17일 『비변사등록』기록에 “黑山鎮 鎮將의 보고 내에, 異國 商船이 폭풍을 만나 大牛耳島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鎮將이 鎮村에 머무르게 하고, 섬에 있는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sup>79)</sup>

『자산록』에 언급될 정도로 우이도가 표류선이 자주 도착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sup>80)</sup> 하나는 우이도가 지닌 공간적 국제성이다. 지리적으로 국제해로의 요충지가 된다는 의미이며, 쇄국 시대였던 19세기 후반 상황에서 우이도는 외국인과 섬 주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는 상징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류인이 타고 온 배를 수리하여 다시 출항이 가능한 경우는 현지에서 머물면서 바닷길을 이용하여 귀환시키는 절차로 송환되었고, 불가능한 경우는 육로로 호송되었다. 표류선이 섬에 표착하게 되면, 이를 통해 외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sup>81)</sup>

다른 하나는 섬 주민들의 지닌 부담이 컸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배인에 대한 보수주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표류선이 도착하게 되면 표류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섬에서 이루어졌다. 유배인과 표류인 문제는 섬이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특수 상황이면서, 한편으로는 섬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기도 했다.

다음은 우이도 해역에서 행해진 어업 상황에 대한 정보부분이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업과 관련된 희귀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1875년 3월 10일

79) 『비변사등록』, 1742년(영조 18) 9월 17일 기사.

80) 현 신안군에 해당하는 서남해 도서는 표류선이 자주 도착하는 곳이다. 표류선 관리와 관련된 정보는 『비변사등록』에 가장 잘 남아 있다. 『비변사등록』중 현 신안군 도서와 관련된 기록을 검색해 보면 총 145건이 확인되는데 그중 104건이 표도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33건이 우이도(혹산도)와 관련된 기사이다.

81)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최성환, 2012, 『문순득 표류연구』, 민속원, 2012. 85~87쪽 ‘제3장 2절 표류와 표착의 문화공간’.

기록에 남아있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주목된다.

3~4월 사이에 이 섬에는 각 섬에서 준치 잡는 그물배들이 서로 모여들어, 천백 척이 무리를 이루어 물결을 따라 오르내리는데,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즐길만하다고 한다.<sup>82)</sup>

이는 봄철에 고기잡이 배들이 우이도 인근해역으로 몰려들어 어업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우이도 인근이 19세기 후반에 황금어장으로서 가치를 지녔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우이도의 古蹟에 대한 부분이다. 우이도 窟巖山 유람과 관련 된 1875년 3월 10일 기록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굴암산을 구경하였다.(중략) 굽이돌아 산의 북쪽에 이르니 한 칸 석실이 있는데, 탑 위에 금불 좌상이 하나 있고, 말구유 아래 鐵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마치 바다를 건너가는 듯하다. 물어보니, 곧 여기가 新羅 때에 孤雲 崔致遠이 唐 나라에 갈 때 들러 갔던 遺蹟이라 한다.<sup>83)</sup>

박우현이 목격한 우이도 최치원 유적에 대한 것이다. 최치원 유적은 우이도 상산봉과 관련이 있다. 굴암산은 우이도 진리 마을 현 주민들이 ‘굴봉’이라고 부르는 산봉우리인데, 박우현이 이곳에서 북쪽으로 들어가 현 상산봉까지 이동한 후 최치원 유적을 목격하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 최치원이 중국으로 가는 길에 우이도에 들렀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유명한 설화이다. 『자산록』을 통해 19세기 후반까지 관련 유적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우현의 기록에는 ‘탑’과 ‘금불좌상’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러한 유적은 모두 사라졌다. 최치원이 우이도에서 신선과 바둑을 두기 위해 만들었다는 ‘바둑바위’만 설화와 함께 남아 있다.

82) 『茲山錄』 1875년 3월 10일.

83) 『茲山錄』 1875년 3월 10일.

박우현은 이 유람기에 흑산의 옛 지명과 관련 된 내용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곳을 어찌 黑山이라 이름 했던 말인가. 섬사람이 말하기를, 신라 때에는 원래 月山郡이라 하였고, 우리 朝鮮에 들어와 黑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데 그 까닭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

‘흑산’의 원래 이름이 ‘月山郡’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흑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주민들의 구전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료의 기록과는 일치 하지 않는다. 고려시대 기록에 이미 흑산도로 칭하고 있으며, 오히려 월산군이라는 지명은 검색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이도 유배인 김약행의 기록에도 “大黑山은 옛적에 越山郡이었다고 하나, 어느 때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sup>84)</sup>는 내용이 남아있고, 1954년 대흑산도에 대한 학술조사 기록인 『한국서해도서』에도 이와 같은 지명유래가 담겨있다는 점이다.<sup>85)</sup> 김약행의 기록처럼 월산군은 우이도가 아닌 대흑산도와 관련 된 지명으로 보인다. 대흑산도에는 통일신라말기 고려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라산성이 남아 있는데, 이 산성의 석축이 마치 반월모양이라 주민들은 흔히 반월성이라 불렀다. 본 연구자는 상라산 정상부에 이 반월성이 있어서 대흑산도를 일명 ‘월산군’으로 부른 것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에서 사용한 공식명칭이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관찬 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옛 지명과 관련 된 내용이 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흥미롭다.

다음은 조선후기 우이도 주민들의 경제상황과 관련 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우이도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1874년 1월 5일 기록에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4) 『遊大黑記』, “大黑山古越山郡云而不知置廢之在何時”.

85) 국립박물관, 1957, 『韓國西海島嶼』, 민족문화, 3쪽.

지세가 비록 탄환처럼 작으나 둘 자갈이 많고 산비탈 받은 메달라서 보리나 심기에 적당한 정도이니, 배를 부려 밖에서 곡식을 실어와 생계를 꾸려간다.<sup>86)</sup>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지형이라 배를 이용해 외부에서 생활물자를 공급해 와야 하는 우이도 주민들의 경제상황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이도 주민들은 유배인 박우현을 매우 극진히 대하였는데, 1876년에 이르러 섬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변하였다. 그 해 겨울부터 그 이듬해까지의 상황은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어서 유배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박우현은 19세기 후반 섬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얼마나 곤경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산록』에 생생히 기록하였다. 1876년 12월 3일 기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섬에 칠팔월부터 바깥에서 들어오던 곡물이 갑자기 끊어지고 저축해둔 곡식도 따라서 떨어지니 만약 손놀림 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갈근을 캐먹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탄환 같은 작은 땅에 產物은 한이 있는데 캐는 것은 끝이 없으니 그나마 어찌 배겨 나겠는가. 이에 부황 든 사람이 속출하고 굶어 죽은 송장이 서로 이어져 강도와 절도로 인한 근심과 힘으로 빼앗고 훔쳐 먹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 이처럼 좋지 못한 상황이 어찌 하여야 끝이 날지 모르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섬 주민들은 산에 올라 갈근을 캐먹으며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못 먹어서 부어올랐고,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범죄도 늘어났다. 심지어 이듬해인 1877년에는 우이도에 큰 기근이 발생하여 그 참혹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본동 70여 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일백 오륙십에, 한 집안이 모두 죽어 문이 닫힌 집 또한 수십 호에 달한다. 최옥순의 집도 참화를 면하지 못 하였다고 하니

86) 『茲山錄』 1874년 1월 5일.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sup>87)</sup>

작은 섬마을에서 150~160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 집들이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었다. 박우현은 우이도에 안치 된 후 처음에는 보수주인과 글공부를 하는 학동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연명했다. 그러다가 1877년 11월 3일 기록에 “섬사람을 첩으로 들여 몸을 의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1877년 우이도에 큰 기근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후에는 유배인의 처지를 돌 봐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였음을 시사한다. 맨 처음 박우현이 머물렀던 보수주인 최옥순의 집도 이 때 피해를 입었다.<sup>88)</sup> 이 기록은 외부에서 생필품 공급이 끊기면 생활의 위기에 빠지는 遠海 島嶼民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배인의 기록이 아니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19세기 후반 우이도의 구체적인 사회상에 대한 증언으로서 가치를 지녔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74년부터 1885년까지 11년간 유배생활의 전말을 기록한 박우현의 『자산록』을 분석하여 유배길, 유배생활, 섬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산록』은 조선시대 섬 유배인 관리 제도와 관련 된 일반적인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격동의 근대기가 시작되는 19세기 후반 섬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연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섬 유배인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실제 집행 사례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우이도까지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육로와 해로로 구분하여 살폈다. 삼배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유배 길의 재촉, 압송관이 계속 동행하지 않는 상황, 주요 거점별로 압송관이 인계되는 상황, 위리

87) 『茲山錄』 1877년 2월 18일.

88) 『茲山錄』 1877년 2월 18일.

안치 중죄인이지만 이동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것, 가마 사용이 가능했던 점 등을 통해 유배인 관리의 실상을 확인하였고, 유배인이 우이도로 입도하는 해로(다경진 → 암태 남강진 → 비금도 관청구 → 우이도)도 살폈다. 또한 섬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압송관이 관복을 입은 후 安置, 封鎖, 着脚의 절차를 진행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둘째, 우이도 유배인의 구체적 생활양상을 살폈다. 『자산록』에는 보수주인과 학동들의 도움을 받아 섬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우이도 주민들은 외부에서 들어 온 유배인 박우현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박우현은 섬 주민들에게 가족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섬에서 얻은 첩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다. 흑산 별장과 주변의 인사들, 유배 온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교류하였는데, 특히 政敵인 최익현과 유배지에서 만나 교류하는 모습은 섬 공간이 지닌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었다. 섬 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에도 박우현의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고, 외부와 가족 소식을 제 때 듣지 못하는 단절의 경험 역시 섬 유배인의 고충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산록』에 담긴 기록 중 19세기 후반 우이도 사회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폈다. 흑산진의 설치시기와 별장의 역할, 표류선 문제, 흑산의 옛 지명과 우이도의 최치원 유적, 어업상황 등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19세기 말 기근으로 우이도 주민들이 150~16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살폈다. 이러한 내용은 유배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실적인 기록으로서 다른 어떤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처럼 ‘유배인’은 단절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섬 공간’이 지닌 소통의 문화상을 상징하는 매개체이면서, 유배인이 남긴 기록은 섬 지역의 사회상, 유배인과 섬 주민의 교류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의 인문환경이 지닌 특성과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배인의 기록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연구 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7. 3. 30. 심사완료일: 2017. 5. 14. 게재확정일: 2017. 5. 17.

[참고문헌]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大東地志』, 『錦坡遺集』, 『玉壺集』, 『仙華遺稿』, 『高麗圖經』
- 고석규, 2004,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대하여』, 『도서문화』 24권,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국립박물관, 1957, 『韓國西海島嶼』, 민족문화.
- 권오호 역, 2003, 『金理守 傳記』, 신안문화원.
- 金若行, 2005, 『仙華遺稿』, 목민.
- 김경숙, 2004,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67호, 역사문제연구소.
- 김경옥, 2010,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 \_\_\_\_\_, 2011, 『艱貞日錄을 통해본 김령(1805~1866)의 임자도 유배생활』, 『도서문화』 37,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김형만 역, 2016, 『자산록』, 신안문화원
- 김희태, 2009, 『조선시대 신지도 유배인물과 尹行恂의 <신희수필>』, 『향토사연구』 20,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7, 『국역 면암집』 1, 슬.
- 신규수, 2012,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3권0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장선영, 2001, 『조선시기 流刑과 絶島定配의 推移』,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 정진영, 2013, 『섬, 소통의 공간 - 김령 <艱貞日錄>(1862~3)을 통해 본 19세기섬의 형상 -』, 『역사와 경계』 88권, 부산경남사학회.
- 최성환, 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1, 『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 \_\_\_\_\_, 2012, 『문순득 표류연구』, 민속원.
- \_\_\_\_\_, 2014, 『'頭流壇'을 통해 본 金平默의 智島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4, 『<속음청사>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지도유배생활과 도서지역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5,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 역사』 36호, 부경역사연구소.

# Pak Woo-hyeon's Exile in Wooi Island and Social Aspects in the Late 19th Century Seen from 『Jasanrok』

Choi, Sung-Hwan\*

This researcher has continued research to analyze the records of exile in island and examine 'exchange with residents in the island' or 'social aspects in the island'. The site that this author studies here is 'Wooi Island' that was popularly called as 'Heuksan Island' in late Chosun, and the material analyzed here is 『Jasanrok (茲山錄)』 on which Pak Woo-hyeon (1829~1907) wrote his life in exile in Wooi Island. This study will proceed largely in three ways. First, this author examines how exile was done in Heuksan Island in Chosun in general and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k Woo-hyeon's 『Jasanrok』. Second, this researcher looks in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to exile in island and the aspects of living in island in detail. Third, based on the information found in 『Jasanrok』, this author examines the social aspects of Wooi Island in late Chosun.

『Jasanrok』 reveals the whole story of exile in Wooi Island for 11 years from 1874 until 1884 in detail. It is valuable in that it describes the aspects of the time in detail as a diary-type memorandum unlike other records about exile telling the sentiments of that period as a form of poem. This study is fruitful as it has analyzed th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to exile in island, aspects of living, and also social aspects

---

\* Mokpo National University

closely. Concerning administrative measures, this author has found issues related to how a person was sent to exile under escort, inland and sea routes to the exile island, enclosing, or Bosujuin. Regarding the aspects of living, this researcher has investigated Wooi Island residents' responses to exile and their exchange, the exile's recognition on the culture of the island, hardships in exile, and meeting with Choi Ik-hyeon. About social aspects, this author has considered the time to install Heuksanjin, roles of Byeoljang (別將), problems related to the island and the drifting ship, fishing industry in the sea of Wooi Island, or the worst economic condition resulted from famine in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 『Jasanrok(茲山錄)』, Pak Woo-hyeon, Exile(流配), Wooido(牛耳島), Heuksando(黑山島), Heuksanjin(黑山鎭), Echange(交流)